

# '삼류문사'가 주축 이룬 반체제적 저자집단

서양의 금서 이야기 — 마지막 회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단톤의 프랑스 혁명기 금서연구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단톤은 오늘날 거의 잊혀진 '삼류문사'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출발해 그들의 작품이 여론형성에 이바지한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단톤은 혁명 전야의 금서가 비록 합법적인 책에서 갈파한 원리를 단순반복하고 있더라도, 그 전파방식이 파괴적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책이 혁명을 일으키는가? 체제 전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금서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 포르노그래피의 전통만 놓고 보더라도,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 시작했고, 영국에서 이미 왕홀과 왕의 생식기를 동일시하면서 성불능을 늘리는 내용의 포르노그래피가 17세기부터 나왔지만, 왜 프랑스에서 그런 내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이 나라에서만 더욱 큰 의미를 가졌고, 당시 사람들의 백지나 부드러운 밀랍 같은 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인가? 이런 질문은 문제를 지극히 단순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대답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책과 독서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책을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읽는다 할지라도, 주위 환경의 변화나 읽는이의 경험의 폭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금서와 프랑스 혁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본격적으로 매달린 학자가 로버트 단톤이다. 그는 30여년 전부터 계몽시대의 '고급' 사상뿐만 아니라 '저급' 사상도 중요한 연구주제라는 사실에 주

목하면서 '은밀한 문학'의 '베스트셀러'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다. 물론 그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오늘날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은 채 수용되지는 않는다. 사실, 그 자신도 연구를 거듭하는 동안 자기 주장을 더욱 세련되게 정립하는 가운데, 초기 주장을 조금씩 고치기도 했다. 아무튼 그의 연구는 수많은 찬사와 논란을 함께 불러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단톤 주제의 토론. 18세기 책과 혁명》(The Darnton debate. Books and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Voltaire Foundation, 1998)이라는 논문집에서 여남은 명이 단톤의 주요 업적을 중심으로 책과 독서와 계몽시대의 여론문제를 다뤘다.

### 금서와 혁명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논의를 모두 정리할 여유는 없기 때문에, 단톤의 주장을 중심으로 잠시 금서와 혁명의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 한다. 단톤은 계몽사상가와 그들의 저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렇긴 해도, 단톤은 주로 오늘날 거의 잊혀진 삼류문사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출발해, 그들이 남긴 저작이나 계

몽사상가가 쓴 금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런 작품과 저자들의 활동이 여론형성에 이바지한 측면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단톤은 이처럼 '텍스트'를 쓰고, 인쇄해 책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과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잊지 않았다. 그는 책을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산물, 예술작품, 상품, 사상의 운반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혁명 전 프랑스에서 책이라고 할 때, 그것은 특허나 그에 준하는 공식허가를 받아 출판된 것이기 때문에, 금서는 '사회적 특권'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한 금서의 저자도 대체로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특허'나 '특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는 금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세계관은 독자층의 세계관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독자는 금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대상과 그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독자는 자신이 전혀 모르던 세계를 소개받을 경우도 있다. 궁정 내부의 은밀한 얘기, 세간에 떠도는 흥흥한 소문, 사회적 특권층의 위선, 그들도 물질적으로 평민과 다르지 않다는 물질주의 철학을 거칠고 조야한 표현 속에서 전달받을 수 있다.

단톤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곧이곧대로 받는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입말을 글씨로 고정하고, 인쇄물로 확대재생산했다는 데서 모든 종류의 금서, 특히 온갖 일화를 담은 책의 문화적 의미를 찾는다. 다시 말해서, 금서는 계몽시대의 모든 합법적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를 다시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원리를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전파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기존질서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수많은 인쇄물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내가 《바스티유의 금서》(문학과지성사, 1990)를 쓸 때만 해도, 나는 금서와 프랑스혁명의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크게 봐서 '책의 역사' 속에서 금서가 어떻게 제작되고, 유통됐는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관련됐는지를 살폈다. 나는 먼저 계몽시대에 금서로 말미암아 경찰의 추적을 받고 바스티유의 쓴맛을 본 사람들을 사회직업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나서, 금서목록을 바탕으로 저자가 누구며, 저자나 출판인은 될 수 있는 대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책략을 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나는 금서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힘든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금서의 저자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일류 계몽사상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완전히 잊혀진 삼류문사까지 두루 포함돼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와 함께 나는 비록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금서의 저자들은 사회적 불만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면서,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원문제의 일부를 금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 확대된 지평에서 금서의 사회사 조명해야

물론 지금도 나는 이런 틀을 고수하고 있긴 해도, 좀더 복잡한 현실 속에서 금서와 그 저자, 그리고 독자의 자리를 찾아주려고 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예를 들어, '사치단속령'이라는 법이 수 세기 동안 거둬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오직 귀족만이 비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법은 사회적 신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비단의 생산능력이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돈이 있다고 너도나도 비단을 살 수 있다면 귀족은 어떻게 사회적 체면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비단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자, 옷감보다는 옷 모양이 단속의 대상이 됐다.

책의 세계에 대해 생각할 때도 우리는 종이·활자·인쇄기라는 물질적 조건, 문자해독률이라는 문화적 조건, 검열제도라는 정치적 조건, 독자의 경제력과 그 문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독서실 운영과 관련된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넘쳐흐르고, 누구나 프린터만 있으면 인쇄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라.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정보를 쉽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 혁명 전의 상황은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했을지라도 18세기초와 견줘 볼 때 훨씬 복잡해졌다.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책의 종류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검열제도를 운영하기가 더욱 벅찼던 것이다. 나는 이런 조건 속에서 금서를 매개로 한 문화적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됐다.

그러므로 앙시앵 레짐 말기의 금서를 연구 주제로 삼으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조건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성차별에 따른 문화적 불평등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 주제에 접근하려 노력하

고 있다. 거의 모든 금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몽사상가 테레즈》《헌 옷 깎는 마르고》《들춰진 커튼》의 저자가 남성이며, 남성 독자를 주로 겨냥하고 글을 썼으며, 비록 여성에게 성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역할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성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더욱 체제전복적인 성격을 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서는 내가 십수년 전에 다루기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연구대상이 됐다. 금서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 내 인식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 연재물을 쓰면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18세기 프랑스까지 금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글을 쓰고, 유통시키는 문제를 간략하게 짚어왔다. 나는 이를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하려 한다. 19세기 이전의 금서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선택기준에 따라서 글을 써왔지만, 19세기 이후의 세계는 단순화시켜서 말하기 벅찰 정도로 복잡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염두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써온 내용만으로 금서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부각시켰다고 믿는다. 금서는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권력의 분배과정에서 생기는 우연의 산물이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책도 공식적으로 금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사회의 하부집단 속에서는 금서가 생길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독자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남북이 갈라진 현실 속에서 글을 쓰는 우리는 금서문제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람들이 더욱 너그러워져서, 남을 검열하면서 상처를 입히는 현실이 사라지는 날을 보고 싶다. ●